

2026. 01. 06 13:27

아직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시끄럽습니다. 저야 그 덕에 이번 침공의 최대 수혜자인 CUX를 고가에 매도하고 NEE를 20개 샀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팔고 사고 재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보면 국제 무기상이나 다를 것이 없겠지요.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타국의 자원이 멋대로 이용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참 잔인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동안은 순수하게 투자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방금 전에는 입원 환자에게 처방해서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의 절대수는 한계가 있는데 매출은 늘려야 하니까요. 거기다 제 경우에는 요즘 환자가 적어 스트레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것 저것 처방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지만 병원은 매년 적자라고 하고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참 슬프네요.

그나저나 오늘 딸아이 생일입니다. 벌써 만 16세가 되었네요. 이제는 진짜 다 컸습니다. 어제는 이번 윈터스쿨에 들어간 수학반이 너무 어려웠는지 물어군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한참 달래줬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최근에 딸아이를 조금 어리게 생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이제는 큰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테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조언이나 하고 응원이나 해야겠습니다.

아침, 이번에 딸아이 생일 선물로 WH-1000XM5 라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샀는데 오늘 귀야겠네요. 얼마전에 가장 오래된 헤드폰이 소리가 나오지 않아 버렸던데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거 포장한다고 손도 베이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ㅎㅎ 역시 죽어라 돈 벌고 일하기 싫어도 출근 하는

것은 가족을 보살핀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 옛날 사람
이네요.

아침, 어제는 월급이 저녁 8시 17분인가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담당자가 바뀐 후 일이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자주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병원의 사정이 정말 안 좋은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는 실내의 천장에 HF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장에, 정확히는 천장의 모서리를 따라 선을 설치해서 HF대역
일부라도 교신이 가능할지 살펴보려구요.

Antenna Book을 보고 한동안 혼자 곰씹어본 결과,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인지라
전력 손실이 다소 발생해도 일단 교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비를 꾸리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실내에 안테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시간 (노출시간)이 짧으니까요. 아무튼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